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멕시코: 제도혁명당(PRI)의 새로운 개혁

쿠아우테목 라라 바르가스

2012년에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는 비록 근소한 차이였지만 좌파와 우파 경쟁자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승리를 거둬서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PRI)의 대통령직을 회복했다. 제도혁명당이 우파인 국민행동당(PAN)이 12년 동안 집권한 뒤에 재집권한 것은, 제도혁명당이 과거에 많은 멕시코인에게 부패와 비효율의 가장 냉소적인 형태를 의미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과거 제도혁명당은 가끔은 가장 극단적인 권위주의에, 가끔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경쟁자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멕시코를 70년 이상 지배했었다. 제도혁명당의 힘은 1968년에 학생운동이 발발하고, 1985년에 발생한 무시무시한 지진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사회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로 쇠퇴해 왔다. 1995년에 발생한 경제위기(국제적으로는 “데킬라 효과(El efecto Tequila)”라고 알려져 있는)는 멕시코 화폐의 가치를 현저하게 평가 절하시키고, 1940년부터 1990년까지 수십 년 동안 제도혁명당이 시행한 사회·경제적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멕시코 중산층을 실망시켰다. 제도혁명당을 획일적인 정당, 여러 해 동안 변치 않는 정책을 시행한 정당이라



2012년 멕시코 대선에서 승리한 페냐 니에토 대통령 (출처: <http://www.icndiario.com/>)

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가 될 것이다. 사실, 제도혁명당은 가끔은 사회주의화된 좌파의 수사(修辭)를 구사하고, 때때로 멕시코 국내외의 대자본가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여러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실용적인 정당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 유럽식의 이데올로기적인 정당과는 다른 제도혁명당은 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권력의 분점을 추구하면서 한 명의 위대한 심판, 즉 “대통령 님”을 통해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그룹들, 심지어는 대립적인 그룹들의 연합체로 특징될 수 있다. 제도혁명당에는 성격이 지극히 상이한 집단들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통합 요인은 이들 모두가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심에 기반을 두었다. 이 충성심은 이들이 맡게 되는 공적인 역할과 정부와 맺은 다양한 계약을 통해 푸짐하게 보상받았다.

제도혁명당 내에는 모순적인 특징들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은 제도혁명당의 통치에 장애가 되기는커녕 현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혁명당이 다른 정파들과 동맹을 맺도록

해 주고, 그들 정파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현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최근 몇 십 년 동안의 멕시코 정치에서 가장 영리한 정치가임을 보여주었고, 그의 명백한 실용주의는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을 각종 개혁을 그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페냐 니에토의 제도혁명당은 자당의 구세대 당원들(당 내의 “좌파”)을 미국 대학에서 교육받은 젊은 기술관료들(당 내의 “우파”)과 결합시켜 왔다. 페냐 니에토는 정치 스펙트럼에서 중도·개혁적인 정치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는 협상 능력을 발휘해 가끔은 우파 정당(국민행동당: Partido Acción Nacional)과 가깝게 지내고, 때때로는 주요 좌파 정당인 민주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과도 가깝게 지낸다.

페냐 니에토가 지닌 이런 특징은 멕시코 입법기관들에서 대통령의 계획이 승인되도록 하는 데 대단히 유익했다. 이들 입법기관의 현재 구성 비율 때문에 어떤 법안이 단일 정당 입법자들의 찬성만으로는 승인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혁명당은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기 위해 멕시코 의회의 부채꼴 의석 이쪽저쪽에 있는 입법자들과 동맹을 맺는다. 심지어 페냐 니에토는 다른 정당 지도자 집단들이 자신에게 가지는 다소간의 호의에 의존하기까지 한다.¹⁾

페냐 니에토는 산업화된 세계가 여전히 불경기 상태에 있거나 취약한 회복기에 있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지역 현장,

1) 제도혁명당이 하원 의석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은 각각 20%를 약간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점유 비율이 작은 정당들도 있다. 그들 가운데 세 정당은 제도혁명당의 ‘위성 정당’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들은 자동적으로 제도혁명당을 위해 투표하는데, 이들은 하원 투표권의 약 5%를 차지한다. 하원의 의석 분포가 몹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위성정당의 권한은 이들당의 실제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 다른 입법기관인 상원의 의석 분포는 하원의 의석 분포와 약간 다르다. 의결권은 제도혁명당이 40%, 국민행동당이 30%, 민주혁명당이 17%를 점유하고 있다. 하원이건 상원이건, 제도혁명당이 이들 두 거대 야당 가운데 하나와 연합하면 의회의 과반수를 충분히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루어지는 개헌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연합하면 가능해진다. 동전의 다른 면은 야당인 국민행동당-민주혁명당이 연합하면 개헌을 저지할 수 있으나 이 두 정당의 연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정당 사이에 존재하는 선명한 이데올로기적인 차이 때문에 일시적이고 아주 불안정했다.

즉 멕시코가 마약거래로 인해, 그리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법률들을 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던 입법적인 마비상태에 처하게 됨으로써 폭력과 치안 불안정 등의 지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에 집권했다. 페냐 니에토는 국민행동당의 전임 대통령들이 채택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략들을 채택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했다. 새 정부는 마약거래에 대한 싸움에서 역점 사항을 바꾸었다. 사실, 전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은 마약거래에 대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통치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년 동안 120,000 이상의 인명이 사망했지만 마약 카르텔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페냐 니에토는 주요 범죄 집단들에게만 국한되는 외과적인 충격을 가하기 위해 과시성은 떨어지지만 지혜로운 활동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하기로 작정했다. 필자는 마약거래가 유발하는 사회적·정치적 영향에 관한 사안을 본고에서는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겠으나, 이 문제의 엄청난 크기는 감출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 필자는 마약거래의 영향이 멕시코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했고, 국민 대다수의 일상사를 변화시켜 버렸다는 사실만 언급하겠다. 실제로, 멕시코가 지닌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마약으로부터 유발된 갈등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국내 상황에서 페냐 니에토 정부가 채택한 다른 주요 전략은 경제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법률안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개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 재정, 방송통신, 정치, 그리고 에너지 관련 법률안이다. 이들 법률안 개정은 범위와 깊이에서 서로 다르다. 앞의 세 가지 법률안은 의회, 즉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이미 대체로 승인되었는데, 열렬한 찬사와 더불어 신랄한 비판을 유발했다. 통신 분야 하위 법안들의 승인은 아직 계류 중이다. 나머지 두 분야의 법률안 개혁은 여전히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나, 가까운 장래에 승인될



연설 중인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 (출처: <http://mexico.cnn.com/>)

것이라 예상된다.

이미 승인된 새로운 법률안들과 발의된 법률안들을 일견해 보면, 비록 이들 법률안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법률안 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비교해 볼 때 부분적이고 빈약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교육 개혁에 관해 점검해 보자. 교육 개혁은 공공교육에서 교사들의 자격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무시무시한 부패를 척결하려는 것이다. 거대한 교원 노조의 지도자들은 정부 여당에 순종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과거 제도혁명당의 유산이었다. 전국교육노동자조합(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이라 불리는 교원노조의 여성 지도자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Elba Esther Gordillo)는 미화 75억 달러에 상응하는 불법자금을 축적했다.²⁾ 대중에게는 ‘여선생님(La maestra)’으로 알

2) <http://www.excelsior.com.mx/nacional/2013/02/27/886370> 참조.

려져 있던 그녀는 사기를 저지르고도 정부의 비호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교사들의 격주급에서 노조 유지비용 조로 정부가 공제한 몫을 직접 축적하는 노골적인 방법을 썼다. 또한, ‘여선생님’은 집권 여당이 제도혁명당이든 국민행동당이든, 정부의 지시에 고분고분했고, 거대한 교사 집단(회원 수 100만 명이 넘는)에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었는데, 사실 교원 노조는 극좌파 활동가들도 탐을 내는 집단이었다. 페냐 니에토의 정부는 집권한 지 2개월 만에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던 이 여성을 투옥시켰다. 여교사 엘바 에스테르가 노조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자 그녀를 추종하던 남자 교사가 위원장이 되었는데, 그는 교원노조에서 정부에 훨씬 더 고분고분하고, 변변찮은 사람이었다.

교육 개혁의 목적은 교육 개혁 자체보다는 오히려 노동 측면에서 교사들의 문제를 개혁하는 데 있는데, 이는 신규 교사 채용에 관한, 그리고 교사들의 계약기간을 정하기 위한 평가에 관한 투명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멕시코 공공교육에 만연한 부패는 교원노조의 지도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팔 수 있거나 일단 퇴직할 순간에 이르면 자신의 노동을 다른 교사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일반 교사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있었다. 게다가 직장에서 교사들의 승진은 교원노조의 자유재량으로 적용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명백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교사가 이번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교단의 가장 과격한 교사 수천 명이 전국교육노동자조합의 공식 지도부보다 먼저 멕시코시티의 중앙 광장에서 여러 주 동안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요약하자면, 페냐 니에토 정부의 교육개혁은 멕시코 교육의 낮은 질에 관한 주요 요인을 공격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 예를 들어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정보 기술 이용,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빈곤과 가계수입의 불평등 같은, 순전히 교육적인 사안들과 원칙적으로는 관련성이 멀어 보이는 사회적 문제들

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들과 더불어 보완되어야 한다.

재정 개혁은 아마도 범위가 더 제한되어 있던 분야였을 것이다. 재정 개혁을 시작할 기회는 2013년도 정부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을 당시에 부여되었다. 엄청난 재정지출 압력을 받은 정부는 과거 개인 및 법인에게 부여했던 재정적인 특혜를 축소했지만 재정 개혁의 주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목표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현재 대다수 식품과 모든 의약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다. 결국, 재정 개혁은 중산층의 세금을 늘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감시 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 개혁은 정부의 세금 징수를 회피하는 거대 규모의 비공식 경제에는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주요 도전은 비공식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공식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 비공식 경제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멕시코 국내 총생산의 20-30%에 달할 것이라고 계산된다.³⁾ 오늘날 비공식 경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엇보이지 않는데, 명확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마법 같은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비공식 경제를 없애 버림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실업 문제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재정 개혁은 국민행동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제도혁명당과 민주혁명당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제한된 범위의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항의를 유발했다.⁴⁾

방송통신 개혁은 두 거대 야당의 지원을 받은 제도혁명당에 의해 승인되었다. 본 개혁의 의도는 공중파 텔레비전, 전화통신 그리고 인터넷

3) ftp2.sat.gob.mx/asistencia_servicio_ftp/publicaciones/ITDWeb/C1_2003_tam_sec_inf_pot_rec_mex.pdf 참조.

4)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기자들 가운데 하나인 세르히오 사르미엔토(Segio Sarmiento)는 저널리즘에 관한 글을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그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다. 필자는 그의 글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3년 5월, 방송통신 개혁안 이니셔티브에 서명하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
(출처: <http://www.presidencia.gob.mx/>)

같은 주요 기술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 영역에서 지배적인 기업들의 간섭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입안했다.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법률은 전화통신의 경우에는 멕시코 통신회사(Teléfonos de México)의 힘을 억제하고, 공중파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양대 텔레비전 회사인 텔레비사(Televisa)와 텔레비시온 아스테카(Televisa-Televisión Azteca)의 힘을 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경제학 이론의 일반화된 진실한 논법에 따르자면, 멕시코 정부는 이 두 회사의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 영역에서 공급을 늘이려고 시도한다.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사와 텔레비시온 아스테카가 보유한 채널들의 총 시청자 수는 전체 시청자의 90%가 넘는다고 평가된다.⁵⁾ 제도혁명당의 딜

5)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들을 포함시킨다면 이 수치는 가변적이지만, 멕시코의 이들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은, 선진국들의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보급률이 낮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엘 에

레마는 선거판에서 아주 중요한 동맹자였던 이들 사업체 소유자들을 소외시키지 않은 채 이 영역에서 공급을 다양화하도록 해 주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조치들 가운데 몇 가지 조치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국영 텔레비전의 채널 두 개를 설립함으로써 국영 텔레비전 채널들이 자신들의 영상신호를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공급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다(소위 “must carry, must offer” 규정)⁶⁾. 이 두 가지 규정은 두 개의 거대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인 텔레비사와 텔레비시온 아스테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들 방송국은 이런 규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이들 조치는 아직 최종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한편으로, 멕시코 최대 유선전화 회사인 텔멕스(Telmex)는 이동통신 자회사 하나를 통해 자신보다 더 작은 회사들과 자신의 기반시설을 공유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텔멕스의 소유주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은 다른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소유주들과 달리 새로운 법에 아주 단호하고 요란스럽게 반대하지는 않으면서 단지 일부 자잘한 규제들에 관해 로비를 하고, 텔레비전 방송 사업에 신중하게 참여하기 위해 동업자들을 찾았다.

최근 몇 주 동안에 방송통신법의 세부 항목들을 구체화시킬 새로운 하위 법안들에 관한 새로운 논쟁 하나가 일어났었다. 텔레비사와 텔레비시온 아스테카는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입법자들(독립 방송통신사들을 위한 소위 ‘텔레반까다(Telebancada)’ 그룹에 속한 입법자들)로 하여금 새

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지(紙)의 평가에 따르면, 멕시코의 텔레비전 시청자 점유 비율은 다음과 같은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 텔레비사가 43.4%, 케이블-위성방송이 27.4%, 텔레비시온 아스테카가 19.5%를 점유한다. 텔레비사는 자회사들을 통해 케이블-위성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주 큰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 6) “must carry”는 케이블 텔레비전 같은 유료 방송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영상신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고, “must offer”는 대규모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들이 자사의 영상신호가 더 넓게 유포될 수 있도록 영상신호를 케이블 텔레비전 같은 유료 방송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로운 방송통신법의 발효를 어렵게 만들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입안한 하위 법안들을 제출하게 했다. 페냐 니에토 정부는 이들 회사가 지닌 경제적·정치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개혁을 무효화하고, 현재의 ‘스테이더스 퀴’를 지켜줌으로써 이들의 요구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두 가지 개혁, 즉 정치 개혁 법률안과 에너지 개혁 법률안은 의회에서 여전히 심의 중이다. 이 법률안들의 승인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야당들은 이들 법률안을 자동적으로 승인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요구를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법률안 승인에 도움을 주겠다고 결정했다. 대개 야당은 국가의 통치자들이 지역과 연방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과거에 통치자들, 특히 제도혁명당의 통치자들은 중세의 영주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각종 선거 과정에 개입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Electoral)가 국가의 선거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11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연방정부의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지닌다.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이 위원회의 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11명의 선거관리위원 선정 작업은 아주 특이하게도 3개 주요 정당의 만장일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제 야당인 국민행동당-민주혁명당은 집권 여당인 제도혁명당이 자당 소속 통치자들의 권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개혁 법률안을 지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야권이 게임에서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으름패로서, 야권은 분명 에너지 개혁 법률안의 승인을 당분간 미룰 것인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도혁명당이 의회에서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개혁인 에너지 개혁은 광범위한 개혁으로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터부 하나를 깨뜨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 터부는 석유 및 전기 생산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1938년에 라



멕시코 석유 국영기업 페멕스(Pemex)의 건물과 멕시코 국기
(출처: <http://www.dineroenimagen.com/>)

사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활동하던 외국계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멕시코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자 이들 회사의 자산을 국유화시켜 버렸다.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당시에 찍은 사진들에 드러나 있듯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이는 멕시코가 두 번째 독립을 이룬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들 외국계 회사들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는 페멕스(Petroleos Mexicanos: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를 설립했는데, 페멕스가 멕시코 국내와 외국에 판매한 석유는 멕시코의 국가 주 수입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뒤 정부는 미국 계와 캐나다 계의 전기 회사들을 국유화시켰고, 그 어떤 외국계 회사도 멕시코의 관련 분야 국영기업들과 경쟁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률안을 채택했다. 이런 조치는 멕시코 좌파들에게 국가의 자체 결정권에 대한 사례, 그리고 미국의 신식민지화에 대한 멕시코 측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는 국유화된 회사들의 저생산성, 기술의 퇴보, 노조

의 만연된 부패 등 국가 독점화의 모든 폐해를 유발했다. 페멕스는 세계 제3위의 석유 생산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대한 난점들을 지닌 채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페멕스의 자산을 유출함으로써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페멕스 노조의 부패는 전국교육노동자조합에서 발생했던 부패에 비해 더 크고, 그럼으로써 국가에 무거운 부담으로 변해 버렸다. 오직 페멕스의 노조가 정부에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것만이 정부가 노조 지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게 될 고발조치를 막을 수 있었다.

페냐 니에토 정부는, 다수의 민간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정치적인 동맹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노조의 부패가 없는 다양한 회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석유와 전기 분야를 개방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전기와 석유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혁명당과 다른 좌파 단체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정부는 국민행동당이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정부의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 분야 개혁에 대한 정부의 제안은 국민 대다수에게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비티(Gravity)>라는 영화로 201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알폰소 쿠아론(Alfonso Cuarón)은 이런 불안감을 대변했다. 주요 신문들의 지면 반 쪽을 할애한 기사에서 알폰소 쿠아론은 10개의 질문을 통해 이 개혁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부 측으로부터는 진실한 대답을 받아내지 못했다. 정부는 아주 두루뭉술한 대답 또는 이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식의 대답을 선호했던 것이다. 쿠아론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제안을 더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게 하고, 제도혁명당-국민행동당의 동맹이 정부의 발의안을 무비판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중재자적 목적을 성취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의 멕시코가 기대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전망은 비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리 어둡지도 않고, 페냐 니에토 정부가 예견하는 것과 달리 그리 밝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들 개혁이 멕시코의 경제와 사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유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들 개혁의 실제적인 영향은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 석유시장의 조건들 같은 일부 환경 때문에 페냐 니에토의 선의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제도와 그 제도들에 의해 탄생될 기구들을 감시할 여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개혁의 결과가 일부 소수에 의해 점유됨으로써 멕시코 국민 대다수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진부하고 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하려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의 정치적인 용기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조구호 옮김]

쿠아우테목 라라 바르가스(Cuauhtémoc Lara Vargas) - 멕시코 이즈타팔라파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Iztapalapa) 교수
 조구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